

2023. 11. 6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

관광정책과장	조성호	02-2133-2805
관광정책팀장	이재화	02-2133-2807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가동... 관광인재 300명 취업 성공

- 지난 5월부터 서울시-서울관광협회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운영... 맞춤형 채용
- 6개월간 실제 취업 연계 건수 약 300여 건... 중소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
- 인력난 해소는 관광산업 회복의 최우선 과제...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

- 팬데믹을 맞아 관광산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, 지난 3년간의 관광인력 대거 유출로 많은 관광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.
- 이러한 중소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관광협회가 ‘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’를 운영한 결과, 운영 6개월 만에 300여 명의 관광인재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 -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는 직종별·경력별·업무 난이도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인 업체별 특성에 맞는 구직자 추천, 구직자 요구에 맞는 기업 등 맞춤형 채용을 지원한다.
- 먼저, 국내 대표 채용사이트 ‘잡코리아’와 협력해 서울관광업 종사자 전문 구인·구직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여 사업체와 구직자의 연결을 돕고, 관광 분야에 특화된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- 지난 8월 7일 오픈하여 현재까지 총 169개의 기업 참여, 채용공고 493건이 등록되어 채용공고 조회수 약 19만 회, 취업공고 지원자 수는 총 4,600여 명에 이른다.
- 온라인 채용사이트 외에도 서울시관광협회에 오프라인 고용지원센터를 두고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상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.
 - 구직자의 취업 준비정도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:1 취업컨설팅, 관광산업 채용동향 분석 및 취업 대비 입사서류 작성전략 등 취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.
- 또한,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서울시관광협회가 발굴·보유한 인재를 필요한 기업에 추천하는 관광인재 추천채용제(리쿠르팅)도 운영한다. 현재까지 여행업, 호텔/운수업 등 총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28개 채용의뢰가 접수되었다.
-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인 관광사업체 홍보와 예비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직무인터뷰 및 기업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, 11월 중에는 관광 분야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도 개최할 예정이다.
-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“인력난 해소는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”라면서, “서울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, 관광업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고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